대불산단 전지역 LNG 공급

280억 들여 공급 선로작업 2009년 완공

입주업체 연료비 절감·경쟁력 향상 기대

영암 대불 국가산업단지에 액화 천연가스(LNG)가 공급된다.

전남도와 영암군은 총사업비 280억여원을 들여 오는 2009년 완공 목표로 8월초 대불산단 LNG 시설공사에 착수한다.

올해 1단계로 목포 도시가스공사~대불산단 인입점~외국인 전용단지 구간(8㎞)에 LNG가 공급된다.

이어 2단계로 2009년까지 대불산단 전역에 공급 선로가 깔리며 2009년 이후에는 삼호읍 등 대불산단 인근지역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대불산단은 전국 35개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유일하게 LNG 공급이 되지 않아 입주업체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 때문에 대불산단 입주업체들은 비용이 많이 들고 공해를 유발하는 벙커C유를 사용해 왔다.

신문 용지 생산업체인 보워터코리아의 경우 유지관리비용을 포함해 연간 80억원이 넘는 유류비를 부담해 왔다.

천연가스 공급이 본격화되면 연료비 절감으로 입주 기업들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는 물론 대불산단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지구온난화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도 벙커C유에 비해 30% 가까이 줄어들어 산단 주변 환경개선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영암군은 연간 1억8천㎥의 액화 천연가스가 소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대불산단은 6월말 현재 182개 업체가 가동중이고 86개 업체가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영암=김한남기자 hnkim@

호우 대비 항공구조 훈련 영암산림항공관리소(소장 진기추)가 여름철 집중호우 등에 대비, 구조장비를 갖춘 대형 헬기와 6명의 공중진화 산불대원들로 비상 대기조를 편성했다. 산림항공관리소는 그동안 인명구조와 구호품 투하 등 강도 높은 항공구조 훈련을 계속해 왔다. /영암=김한남기자 hnkim@

땅끝 여름바다 '주말페스티벌'

매주 문화이벤트 풍성

'땅끝 여름바다에서는 주말마다 축제가 열린다!'

지난달 22일 개장한 해남 송호해수욕장에서 주말마다 다채로운 문화이벤트 행사가 열린다.

해남군은 보다 많은 피서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매주 토·일요일에 '여름 해변페스티벌'이라는 제목으로 주말 상설공연을 마련한다.

토요일에는 공룡화석발굴 체험과 공룡포토존이 운영되고 영화와 연극 등 각종 공연이 펼쳐진다.

일요일에는 해변 닭싸움, 모래사장 달리기, 해변 씨름대회, 모래속 보물찾기 등 각종 현장이벤트가 즉석에서 펼쳐진다.

또 오는 22일에는 비치발리볼 대회, 29일에는 5인조 축구대회가 송호 해변에서 열릴 예정이다.

특히 주말공연에는 지역 예술단체 공연과 해남고교 락페스티벌 등도 마련된다.

한편 해남지역 해수욕장은 오는 8월19일까지 문을 연다.

/해남=박정옥기자 jopark@

"밤하늘 별 여행 떠나 보세요"

정남진 천문과학관 개관 1돌 산상 음악회도

'정남진 장흥에서 밤하늘 별 여행 떠나요'

장흥군 정남진 천문과학관이 오는 7일 개관 1주년을 맞아 천문과학관 야외광장에서 '견우·직녀와 함께 하는 산상(山上) 음악회'를 개최한다. 오후 8시부터 9시40분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대금과 테너 색스폰, 트럼펫 연주를 비롯해 플루트와 관현악단 합주 등 다채로운 연주가 펼쳐진다.

또 여름 별자리 관찰, 별자리 신화를 통한 행운의 색과 달(月) 알아보기를 비롯해 모션 시뮬레이터가 장착된 천체투영실에서는 별들 사이를 직접 여행하는 짜릿한 체험을 할 수 있다.

한편 정남진 천문과학관은 하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달간 물 로켓 발사체험, 알쏭달쏭 별 OX퀴즈, 손수건을 활용한 별자리 그리기 등 '여름밤 별빛속으로' 이벤트도 개최한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장흥 정남진 천문과학관이 오는 7일 개관 1주년을 맞는다. 천문과학관을 찾은 학생들이 반사망원경을 통해 천체를 관측하고 있다.

여수엑스포 UCC공모전 개최

'살아있는 바다' 등 주제 네티즌 참여 유도

2012여수세계박람회 준비위원회가 유치 열기 확산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UCC를 공모한다.

준비위원회는 박람회 유치열기를 확산하고 네티즌 참여의 장을 마련하기위해 UCC(User Created Content·사용자 직접 제작 콘텐츠) 공모전을 갖는다.

접수는 오는 9월14일까지이며 심사 발표는 같은 달 28일, 시상은 10월8일께 있을 예정이다.

공모테마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한 '2012여수세계박람회'와 '여수'를 국내외에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면 된다.

대상에는 해양수산부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이 수여되며 금상은 전남도지사상과 300만원, 은상(2개팀)은 여수시장상과 100만원, 동상(5개팀)은 2012여수세계박람회 준비위원장상과 50만원이 수여된다. 문의 (061-690-7188~9)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정남진 장흥농협 '총화상' 수상

지난해 예금유치·쌀 판매 실적 뛰어나

한때 경영부실과 부실채권 누적으로 해산위기를 맞았던 '정남진 장흥농협'이 회원농협의 영예인 '총화상'을 수상했다.

정남진장흥농협은 지난달 28일 전남도내 150개 회원농협 가운데 조합원과 임직원의 단결과 화합이 가장 뛰어난 조합으로 인정돼 전국 시·도를 대표한 16개 회원조합들과 함께 농협중앙회가 주는 총화상을 받았다.

정남진장흥농협은 지난 2005년 부실조합으로 조합원들마저 등을 돌린 장흥농협과 유치농협이 합병해 출범했다.

정남진농협은 통합 1년 만에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친절봉사와 인화단결을 발휘, 예금유치와 대출 등의 여수신관리는 물론 경제사업 부문에서 탁월한 실적을 올렸다.

그 결과 지난해 전국 1천220개 회원농협 업적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고홍천 조합장은 "부실조합이라는 불명예를 극복하기 위해 전 임직원들이 합심 노력한 결과가 오늘의 튼튼한 농협, 믿을수 있는 농협으로 조합원들에게 인정 받게 됐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여수 화정면 사도~낭도 인도교 가설공사

문화재보호법 위반 공사 중단

여수 화정면 사도와 낭도를 연결하는 인도교 가설공사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등 총체적 관리 부실로 드러났다.

여수시는 68억원 규모의 사도-낭도 인도교 건설을 위해 지난 2005년 10월 초 2억원을 들여 H기술개발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그해 12월 말께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공정 10% 상태인 올 초 문화재보호법 위반사실이 드러나 공사가 중단됐다.

문화재청은 이지역이 공룡화석지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점을 들어 지난 3월 29일 공사 불허 사실을 여수시에 통보했다.

시는 용역 발주시 용역사에게 '문화재 파악 확인'을 요구해 놓고도 내용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또 지난 1월 18일 20억여원의 공사비 증액에 대한 감리단 요청에 응하면서도 총공사비의 10%이상 변경시 설계용역업자 및 용역 참여 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처분을 하지 않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부실벌점 처분은 이행하지 못했다"며 "과업지시서를 이행하지 않은 용역사에 대해서도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적법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곡성 '무농약 쌀' 수도권 공략

郡·농협 군지부 고양시서 판촉활동

곡성군이 농협중앙회 군지부 및 회원 농협과 함께 수도권 쌀 시장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세일즈 행정을 펼치고 있다.

곡성군과 농협 군지부, 회원농협은 지난 1일 경기도 고양시 농협 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무농약 쌀' 입점기념 판촉행사를 가졌다.〈사진〉

또 고양지역 아파트단지에 '오리와 우렁이 무농약 쌀' 판매 전단지 6천매를 배포하고 곡성쌀 구입 고객에게 홍보용 심청쌀(500g)과 찰보리쌀(500g)을 증정하는 등 수도권 쌀 시장 교두보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군은 이번 판촉행사를 통해 '무농약 쌀'(10㎏)200포와 맑은햇쌀(20㎏) 800포, 수박 12t, 멜론 16t을 판매했으며 식자재 업체인 동원F&D에도 맑은 햇쌀 4천포를 판매하는 성과를 올렸다.

한재식 농협 곡성군 지부장은 "곡성 쌀이 수도권 소비자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